DIOCESE OF SAITAMA

TOKIWA 6-4-12, Urawa-ku,SAITAMA city
〒330-0061, JAPAN
TEL：048-831-3150
FAX：048-824-3532

カトリックさいたま教区

さいたま市浦和区
常盤 6-4-12
〒330-0061
TEL：048-831-3150
FAX：048-824-3532

2010 년 신년 주교 메시지

그리스도를 대신해 부탁드립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1)

사이타마 교구 형제 자매 여러분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제 불황 속에 일이나 생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많은 본당이나 블록이 형제자매로서 함께 기도하고, 나누며, 도움의 손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역경의 때일수록, 하느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내리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제가 주교 서품을 받은 지 10 년이 되는 해입니다. 연초를 맞이하여, 하느님과의 화해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눔을 갖고,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느님과의 화해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하느님과 화해를 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화해란 하느님과 인간과의 본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회를 살펴보면, 인간과 하느님과의 화해가 아직은 실현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계는 죄와 악 그리고 싸움이 존재하며, 평화와 평등은 실현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화해를 했기에, 하느님과의 화해를, 한 사람이라도 많은 이들에게 전할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워 인간과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이치를 우리에게 맡겨 전하게 하셨습니다.」 (2)

이미,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성서 말씀을 전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의 「화해를 위한 봉사 임무」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느님과의 화해에 관해, 우리에게 있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기자신과의 화해

의존증으로부터 벗어나는 회복 프로그램에는 12 스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12 스텝을 위한 기도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나의 생활이 얼마나 힘에 겨운지를 깨닫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자신의 약함, 한계, 생활의 버거움 등을 자신 안에서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강하게 보이거나, 이웃의 눈을 너무 의식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친구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하느님께서 받아들이고 계심을 깨닫는 것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경제, 효율 같은 것만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의 가치관에 휘말려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질 수 없는 짐이나 기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에 응답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자신이 정말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에 깨닫는 것조차 잊어 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기자신과의 화해를 위해서, 마음과 몸, 생활, 이웃과의 사귐 등을 뒤돌아보는 기도의 시간, 나눔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웃과의 화해

저는 여러분이 형제자매로서, 하나의 식탁에 둘러앉는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에도 분열이나 다툼이 일어나고 있음도,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음을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것 역시 인간이 하는 일이므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힘을 내어 서로 남을 존경하는 일에 뒤지지 않도록 하고」 (3)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공동체의 일치를 찾아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지체가 영광스럽게 되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4)

이웃과의 화해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활동이 성령에 의한 것인가를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오로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참고해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지체를 우리의 몸에 두셨습니다. 눈이 손더러 "너는 나에게 소용이 없다."하고 말할 수도 없고 머리가 발더러 "너는 나에게 소용이 없어" 하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5)

자연과의 화해

자연과의 화해라 함은, 하느님과 인간과의 화해와는 조금 다르다고 느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피조물인 자연과의 화해는, 청빈이라는 인간의 삶의 방법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하느님과 인간과의 본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청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제가 여러분과 나눔을 갖는 와중에 세 개의 포인트가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돈이나 물건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워지는 것. 두 번째는 하느님의 피조물인 물이나 공기와 같은 자연, 그 열매, 생산물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나 자연과 만나는 것입니다. 청빈에 대해 여기서 자세히 말씀 드리지 못하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분과 나눔을 가지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목 평의회에 보내는 자문「빈곤, 환경 문제에 관해 교회가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작년 여러분이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어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1 월에 나오게 됩니다. 결과의 보고를 받은 후, 교구는 자연과의 화해의 길을 걷기 위해 그 노력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화해에 관해서 나누어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일년, 여러분과 함께「화해를 위해 봉사하는 임무」를 조금이라도 다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 여러분에게 있어 은혜가 풍성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성자와 성령의 축복이 여러분 위에 내리시기를!

2010 년 1 월 1 일

가톨릭 사이타마 교구

주교 따니 다이지(谷　大二)

（1）고린토 후서 5:20、（2）고린토 후서 5：18、（3）로마서 12:10、（4）고린토 전서 12:26、（5）고린토 전서 12:7~22、